

글. 이한용_ Lee, Han-yong

전곡선사박물관 학예팀장

은빛타임머신 전곡선사박물관

The time machine landing at Jeongokri site

서울에서 3번 국도를 따라 의정부, 양주, 동두천을 지나면 한탄강을 건너 연천군에 다다른다. 요사이 도로사정이 많이 좋아져서 차로는 불과 1시간 남짓 하지만 아직도 이곳 연천은 멀고도 먼 곳이다. 심리적으로 멀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 여름이면 목함지뢰가 떴내려 오고 임진강 댐을 갑자기 열어서 피서객들이 수장되며, 잇을 만하면 뉴스에 등장하는 군부대 사고는 왜 이리 연천이 많은지, 걸핏하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탱크들은 또 얼마나 생경한 풍경인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연천은 여전히 낯설고 삭막한 곳이다.

이곳 연천에는 많은 사람이 학창시절 국사시험 공부시간에 외웠던 전곡리 구석기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30만 년 전 구석기시대, 호모에렉투스, 주먹도끼, 외우긴 외웠지만 당최와 당지가 않았던 구석기시대, 더구나 아슐리안 주먹도끼까지 등장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전곡리 구석기유적은 1978년 동두천에 근무하는 미군 병사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다. 동두천 미군 2사단에 근무하던 그렉보웬이라는 병사가 한탄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서 희한하게 생긴 돌 몇 개를 줍기 시작한 것이 전곡리유적의 첫 발견이다. 그렉보웬이 주웠던 희한한 돌들이 바로 문제의 아슐리안 주먹도끼다.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약 150만 년 전 구석기시대 인류가 새롭게 만들기 시작한 도구로서, 오늘날 스마트폰에 비견될 정도로 획기적인 석기였다. 양쪽 면의 날을 세워 양손을 모은 것 같은 모양으로 만든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구석기시대의 맥가이버칼이라고 할 수 있는 만능도구였고, 그 모양까지 좌우대칭으로 예술품에 가까운 놀라운 석기다. 석기의 설계도가 이미 머릿속에 완벽히 그려져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도구였으니, 인류의 인지능력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하였다는 증거다. 아슐리안이라는 말은 이렇게 잘 만든 주먹도끼들이 처음 발견된 프랑스의 생 따술 (Saint Acheul)에서 따온 이름이다.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에서 구석기고고학을 전공하고, 1990년대 초반부터 전곡리 유적의 발굴조사에 참여하였다. 2008년부터 경기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 건립추진단에 근무하였으며, 현재 전곡선사박물관 학예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헌데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문제였던 것은 서양의 구석기학자들이 인도를 기준으로 서양에서만 발견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며, 하물며 그것이 정설이었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1978년 전곡리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되기 전까지... 아슐리안 주먹도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교하게 발달한 기술이 필요한데 동양에는 이런 기술을 발휘해 만든 주먹도끼가 없었다고 하니, 직접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어도 이미 구석기시대부터 동양은 서양보다 뒤쳐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서구우월주의 학설이 정설이었다는 얘기다. 근데 동양의 제일 끝 한반도에서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딱 하고 발견되었으니, 소위 세계구석기 문화이원론이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고고학유적이 있지만 세계적인 고고학 지도에 표시되는 유적이 바로 이 전곡리유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처럼 세계



전곡리유적에서 출토된 아슐리안 주먹도끼

적으로도 중요한 구석기유적이기 때문에 국사책 첫 페이지에 전곡리유적이 등장했던 것이고, 시험에도 줄곧 출제되었던 것이다.

2011년 4월 25일, 이 전곡리유적에 은빛 타임머신이 내려앉았다. 유적 발견 이후 수십 년간 이어왔던 노력의 결실로 전곡선사박물관이 개관한 것이다. 박물관 건물은 예사롭지 않다. 박물관의 설계자는 원시 고대생명체의 이미지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한다. 아메바의 세포분열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한다. 박물관은 현무암 절벽의 양 끝을 이어주는 다리과 같은 형상이다.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멀리서 보면 거대한 이무기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이 연상되기도 한다. 밤에는 뱀의 문양처럼 타공이 된 곳으로 물 흐르듯 조명이 연출되어 장관을 이루기도 한다.

건물은 수백 개 팀이 참여한 국제현상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으로, 프랑스의 X-TU(국내:홍경식 건축사/㈜서울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전곡선사박물관은 마치 거대한 타임스페이스 셔틀이 내려앉은 당당한 모습으로 삭막한 연천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원시인 같은 구석기시대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 중에는 '구석기박물관을 왜 이리 현대적으로 지었는가?'라며 자못 못마땅해 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먹도끼가 구석기시대의 최신기술이었기 때문에 주먹도끼를 담아낼 박물관을 현대건축의 최신기술로 짓게 되었다는 설명에는 대부분 고개를 끄덕인다.



전곡선사박물관 전경 /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수상작

전곡선사박물관에 근무하는 필자로서는 박물관 건물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특이한 디자인이고 의미성이 탁월하며 건축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아서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전곡리유적을 방문한 외국학자들도 마찬가지로여서 한적한 연천 땅에 이와 같은 초현대식 박물관이 있다는 데 놀라워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한다. 그냥 네모난 콘크리트 건물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칭찬을 많이 받곤 한다. 건축이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을 만든다고 할 때, 박물관건축은 현재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과거의 삶 그리고 미래의 삶까지 담는 그릇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박물관에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고 미래에 살아갈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한 번씩 생각해 보는 삶, 이런 게 문화적인 삶이 아닐까? 문화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맛과 멋이라고 한다. 문화에 대한 참으로 멋진 해석이다.

오늘도 아침햇살에 반짝이는 박물관을 바라보면서 '건축사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작업 중의 하나가 박물관건축이지 않을까?', 나아가 '박물관건축이어야 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본다. 건축사들의 꿈과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빛나는 박물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멋진 박물관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소망해본다.